

실속 재테크

진화하는 변액연금보험

“주가 떨어져도 큰 걱정 안되네”

조기퇴직으로 경제적인 수명이 짧아진 반면, 노후가 길어지면서 노년 삶의 직장인들의 공방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 교육비·생활비로 월급을 쏟아붓고 정작 자신들의 미래를 돌볼 겨를이 없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으로 눈길을 돌릴 것을 권한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보험료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원금·수익보장 상품 다양 = 보험사들은 금융위기 이후 변액연금 상품의 투자수익률 변동에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스텝업(Step Up)’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스텝업 상품은 고객들이 낸 보험

증권투자 자신없는 고객 겨냥 상품 출시

가입땐 수수료 아껴쓰는지 꼼꼼히 따져야

로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 번 높아진 수익률은 다시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한 상품을 말한다.

NG생명이 내놓은 ‘언제나 플러스 연금보험’은 고객이 3가지 적립 방식(상승형·하락형·공시이율) 중 하락형을 선택하면 증시 하락기에 도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ING생명 관계자는 “고객은 증시 상황을 살펴 매년 한 번씩 세가지 투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락형을 선택했다더라도 침체 후 증시가 다시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형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의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은 증시 전망 등에 자신 없는 고객을 겨냥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식형, 채권형 등의 적립방식 선택을 자산운용 전문가가 알아서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자 수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소비자를 겨냥한 ‘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후에도 주식, 채권 등에 계속 투자해 그 수익을 연금액에 더해 준다.

◇사업비·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 변액연금 선택 시에는 자신의 성향뿐 아니라 해당 상품이 사업비나 수수료를 얼마나 아껴쓰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 27개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사업비 평균은 11%에 달했

다. 사업비는 고객이 낸 보험료 중에서 판매비,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돈을 말한다. 사업비가 많이 들수록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보험사나 설계사에 간다는 걸 뜻한다.

또한, 스텝업 상품의 경우 최저 연금보증 수수료가 연 적립금의 0.3~1.1%에 달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해약 리스크(위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40세 고객이 50세까지 10년간 보험금을 낸 후 60세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한다면 최저 연금 보증을 연금 개시 시점인 60세부터 시작된다. 그전에 연금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총장은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정사업비를 꼼꼼히 따지고, 최저 연금 보증 조건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선풍기 사이로

6일 오후 서울광장에 놓여진 선풍기들 사이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 선풍기들은 7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기업 한마당’ 부스에 설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조립을 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상반기 주식 회전을

코스피 ↓ 코스닥 ↑

셀린·금호산업 4회 이상 회전

광주·전남 지역 올 상반기 상장주식 회전율이 유가증권 시장은 감소하고 코스닥시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상반기 상장주식 회전율’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171.78%, 코스닥시장은 485.8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가증권시장

은 92.60%포인트 감소하고 코스닥시장은 145.6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은 올해 상장주식 1주당 1.7번, 코스닥시장은 약 4.9번의 매매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 회전을 상위 종목은 셀린(486.45%), 금호산업(470.97%), 로케트전기(323.85%) 순이며 코스닥시장 상위 종목은 파루(1830.59%), 폴리플러스(787.61%), 지엔알(604.40%) 등의 순이다.

▲주식 회전율 = 거래량 회전율이라고도 하며 전체 상장주식수가 연간 몇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한다. 거래량 회전율이 100%라면 상장주식 총수가 연간 1회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회전을 하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조선내화(6.67%), 광주신세계(17.19%), 화천기공(22.79%) 순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행남자기(68.53%), 대신정보통신(107.35%), KPX생명과학(117.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은행은 우량고객 확보 경쟁

光銀 등 점포망 늘려 수익기반 확대 나서

광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우량 고객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점망 확충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기업·신규고객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금융센터 3곳을 오픈한다.

여수 울촌산단 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울촌산단지점을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인사를 통해 지점개설준비팀을 구성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19일경 서울지역 기업·신규 고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 구로금융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8월경 광주시 광산구에 수완금융센터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지점을 7개 신설했지만, 하반기에는 2배 수준인 13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개인과 기업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 채널로 25개 점포를 통합하고 프라이빗뱅킹(PB) 센터 간 업무 조정과 확대, 재배치 등을 통해 PB센터 5곳을 줄였다.

상반기에 11개 점포를 신설한 신한은행은 하반기에 더 많은 점포를 세울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대형마트 내에 365일 영업하는 영업점 2개를 추가하고 광화문 부근에 신설되는 대기업 사옥에 영업점을 개설하는 등 13~15개를 신설하고 6~7개 지점을 이전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연내 50여개의 지점을 재배치하거나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 또 지점을 현재의 220개에서 20~30% 늘리기 위해 연말부터 차별화된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위주 지점 신설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은행계 카드사는 분사 경쟁

신규 진출 등 지각변동 예고 속 과열 우려

최근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신용카드업 진출을 선언하고 일부 은행계 카드사의 분사가 꾸준히 거론되면서 카드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기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경우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은행계 카드사에서 KB카드와 우리카드, 농협카드의 분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KB카드는 최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이후 카드 분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분사 결정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협도 카드사업부문이 ‘NH카드 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작년에 독자 브랜드인 ‘체움 카드’를 출시하면서 신용부문에서 독립할 것이라는 관측

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분사 계획이 없다”며 “카드분사라는 명칭을 쓰고 독자 브랜드를 출시하니까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카드 분사가 대체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수년간 점업계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으면서 은행계 카드사도 분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신규 카드사가 등장할 경우 현재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수성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물론 KB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간의 2위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도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도요타 국내 6개 모델 리콜

엔진 이상 3704대 무상수리

국토해양부는 도요타가 제작 판매한 승용차 2개 모델 6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6년 8월1일부터 2008년 8월21일 사이에 수입 판매된 GS350(883대) GS450h(31대) GS460(117대) LS460(1506대) LS460L(952대) LS600hL(215대) 등 모두 3704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 이물질이 들어가 스프링에 균열과 파손이 생기고, 심하면 시동



리콜 대상인 GS450h.

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도요타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장에 김선호씨

김선호(58·사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이 제4대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에 내정됐다.



과학기술원은 최근 실시한 원장후보 공모에서 유영은 현 원장과 김 내정자가 응모했으나, 유 원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김 내정자가 단독 후보로 지원해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김 내정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 3년을 시작한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와 KAIST를 거쳐 국립공립시험원 공업연구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기술표준원 화학부장·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Korea's Representative Korean Language Foreign Language Series). The ad features a prominent title in large, stylized blue and white letters. Below the title, there are several images of colorful textbooks and materials. A gold trophy icon is on the left, and a green circular logo with a tree is on the right.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and white pattern.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professional, aimed at promoting educational materials.